

100원짜리 '콩의 기적' 만들 수 있을까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

몸이 건강한 아이들처럼 제 마음대로 웃고, 우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학교에 나가고 싶어도, 친구들과 뛰놀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평범한 일상은 이들이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소원이다.

이수영(여·2·가명)양은 선천성 희귀질환인 이소길조산 혈증 등 일곱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다.

정상인처럼 웃고,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계속되는 발작·구토 탓에 옷거나 울면 증상이 심해져 바늘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수영이는 고통을 잊기 위해 하루에도 수 차례 수면유도 마취제를 맞으며 반수면상태로 지낸다. 수영이의 곁은 어머니(27)가 24시간 지킨다. 아버지(31·지체장애 6급)가 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생활비 대기조차 빠듯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수영이 가족은 꿈은 이루어진다는 소원을 믿고 있다. 어머니의 소원은 수영이가 마음껏 웃고,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김원모(16·가명)군은 몸 근육이 점차 마비되는 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 환자다.

김군은 하루 24시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병상에 누워

희귀병 광주 어린이 3명의 사연

네이버에 올려 전국민 후원 기다려

해피빈과 치료비 900만원 모금 운동

지낸다. 어머니(43)는 지난 12년간 일어나자마자 아들의 맥박을 체크한 뒤 대소변 가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김군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는 아들과 아내의 집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가족 곁을 아예 떠났다. 김군의 유일한 가정은 어머니이지만 아들을 24시간 돌봐야 하는 탓에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구청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다. 어머니의 소원은 아들이 병상에서 일어나 "엄마"라는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박상욱(19·가명)군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인 지난 2006년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병명은 뇌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수모세포종양이었다. 지난 9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 치료비 2100만 원에 달하는 합동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아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다. 아버지가 트러 행상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네 식구 생활비조차 대기 빠듯하다. 박군의 유일한 친구이자 친형(23·지체장애 1급)도 몸이 성치 않다.

아버지의 소원은 두 아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외식을 하는 것이다.

이들의 소원은 이뤄질 수 있을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가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치료비 모금활동에 나섰다.

광주본부는 지난 17일부터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인 '해피빈'에서 모금활동을 진행 중이다. 목표 모금액은 모두 900만 원.

모금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이는 해피빈 사이트에 '콩'을 기부하면 되는데, 한 개당 100원의 가치를 지닌 콩을 네이버 카페·블로그에 게시글을 작성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사연을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에 올리거나 선물을 달면 콩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콩을 직접 구입할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062-351-3513.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사랑나눔 김장, 맛있게 담갔어요” 18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나눔 김장나누기 행사에서 북구사회단체협의회원들이 북한 이탈주민과 저소득가정에 전달할 김치를 담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6 해질 17:23 달 뜨기 04:19 달 지기 15:15

'동장군' 기세등등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강수량 5mm 내외.

지역별 날씨 (°C)	
광주	-5/6
목포	-4/4
여수	-2/4
나주	-8/5
완주	-3/5
구례	-8/6
강진	-6/5
해남	-6/5
장성	-9/4
보성	-6/4
순천	-3/6
영광	-7/5
진도	-5/5
전주	-6/4
군산	-7/4
남원	-7/3
홍산도	2/8

비다 날씨		
시해	오전	오후
안바다	동~남동 0.5~1.0	남동~남 0.5~1.5
남부	남동 0.5~1.5	남~남서 1.0~2.0
남해	남동 0.5~1.0	남~남서 0.5~1.5
서부	남동 0.5~1.5	남~남서 1.0~1.5
면바다(서)	남동 0.5~1.5	남동~남 1.0~2.0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40
빨래	90

주간 날씨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1/5	-3/2	-3/4	-2/7	-2/7	-3/6	-3/5

광주·전남 밤부터 비

다음주초까지 강추위

광주와 전남지역에 내린 폭설은 그쳤지만 매서운 '동장군'(冬將軍)의 기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광주·전남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밤부터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하 8도, 낮최고기온은 3도~6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평년기온보다 3~4도 가량 낮은 기온이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이어

질 전망이며 추위는 최소한 다음주 초인 23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아침기온은 0~4도, 낮기온은 4~7도. 강추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바이칼호와 캄차카반도에 저지고기압과 동시베리아 부근의 저지고기압이 정체된 때문. 시베리아에서 발달한 찬 공기가 한반도에 유입된 뒤 양쪽 저지고기압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갑작스런 추위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감기 등 환절기 질병에 유의해달라"면서 "곳에 따라 강한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pboxer@kwangju.co.kr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27일 인천서 합동영결식

안행부 "유족 요청으로 결정...단원과 희생자는 아직 논의 없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마흔세 명의 합동영결식이 유족의 요청으로 오는 27일 인천에서 열ся된다.

행정자치부는 '세월호사고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이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27일 오전 11시 거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합동영결식은 세월호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표위

원회가 주관하고 정부와 인천시가 지원한다. 이번 합동영결식 계획은 '연내 영결식 거행'을 희망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자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7일 유족과 협의를 거쳐 합동영결식 지

원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인천, 경기, 서울 등에 분산된 일반인 희생자와 유족의 거주지를 고려해 그동안 일반인 희생자 유족을 지원한 행자부와 인천시가 협조해 영결식 비용(행자부), 영결식장 설치 및 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합동영결식은 행자부 장관의 조사(弔辭), 유족대표의 추도사, 유족대표 및 직계 유족과 주요 인사의 헌화·분향, 추모곡, 영정이동 순으로 진행된다. 사회적 의미에서

장례식 또는 타설(訃告)에 해당하는 합동영결식이 끝나면 미래광장에 설치된 일반인 희생자의 합동분향소는 철거된다.

한편 단원과 희생자의 영결식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원과 희생자 유족 측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황필규 변호사는 "단원과 학생이든 일반인 희생자든 단일 사건의 희생자이므로 어떻게든 다 함께 합동영결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반인 희생자 영결식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향뉴스

시계선물 청년 미담 감동...봉사단체, 재능기부센터에 기부금

끼니 해결도 어려웠던 청년을 도운 광주재능기부센터에 답례로 자신의 시계를 선물한 사연(광주일보 11월 19일 22면)과 관련, 광주의 한 봉사단체도 돕겠다며 나섰다.

봉사단체 '좋은 사람들'(회장 정억재)은 18일 오후 6시 광주재능기부센터(공동대표 허상용)에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금을 전달받은 박미정(여·44) 사무국장은 "'시계' 청년이 군 제대

를 할 무렵에 맞춰 기부금을 전할 것"이라며 "후원금은 사람의 공부방과 다룬 화가정 결혼식 등 소외계층을 돕는데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사람들'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광주·전남지역 장애인복지시설에 400만원을 기부해 왔다.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좋은 사람들은 사연의 청년과 재능기부센터에 정기 후원을 할 계획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50년 전통의 주방가전 名家 신일산업 SHINIL

전화로 주문하시면 전제품 (무료배송)

신일 믹서기, 업소용 진공청소기 신일은 모터부터 다릅니다.

名品 최신 신일믹서기 / 고성능! / 초강력! / 대용량! 국내 최초 탈수 겸용 전자식 믹서기

SHINIL 신일 다용도 믹서

SMX-1000HI

- 색상 : 블랙 & 화이트
- 방식 : 컵 Push 타입
- 사용전압 : 220V/60Hz
- 제품용량 : 850ml/500ml/250ml컵
- 소비전력 : 200W
- 제품크기 : 100x340x120 mm

특별판매가 **69,000 원**

• 제품구성 : 컵 3개, 칼날, 칼날, 컵 뚜껑 1개

SHINIL 신일 대용량 믹서

SMX-4000 KBH

- 사용전압 : 220V/60Hz
- 재질 : ABS • 중량 : 4.06kg
- 소비전력 : 650W
- 제품크기 : 270x230x420 mm
- 작동방식 : 전자식

4,000cc 대용량 특별판매가 **139,000 원**

모타의 회전력 손실 방지를 위한 2중 고속베어링 장착

SHINIL 업소용 진공청소기

- 사용전압 : 220V/60Hz
- 용량 : 1.5L • 모터 : 1.58HP
- 소비전력 : 1,400W • 코드길이 : 5M
- 안전장치 :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용(T.P.T.C.O) 채용

특별판매가 **149,000 원**

• 구성품 : 본체, 연장관 2개, 바퀴브러쉬, 작은브러쉬, 흡새노즐.

유형업소, 당구장, 사무실, 여관, 식당 등 사용

재주인: SHINIL 신일산업(주) | 주문전화 / 031) 396-3526 | 농협 302-0599-0586-11 (예금주 김 원 중)